

庾信의 시문에 나타난 사상과 절조 의식

李 國 熙*

<目 次>

- | | |
|---------------|----------------|
| I. 서 론 | III. 유신의 절조 의식 |
| II. 유신의 사상 | 1. 내면 정서의 모순 |
| 1. 유가 사상의 영향 | 2. 현실적 처세 태도 |
| 2. 도불선에 대한 입장 | IV. 결 어 |

I. 서 론

역사 인물의 처세 태도에 관해 논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貳臣’·‘變節’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간단히 몇 마디로 규정지을 수 없을 뿐더러 오늘날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도 안된다. 이신과 변절에 대한 관념은 시대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따라서 庾信의 절조도 후대의 관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그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북조에서 살았을까 하는 점은 그의 행위와 관련지어 그가 남긴 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의 내면에 자리한 개인적 명리 혹은 공명심 내지는 성격적 특성이 어떠한지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를 인간적 측면에서 조망해 보아야 한다. 그가 능동적이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국을 타개해 보려는 일념으로 위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힘을 무릅쓴 채 사신으로 갈 용기를 냈던 점, 그 후 상황의 변화로 결국 되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된 점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그가 내면적으로 어떠한 고뇌를 겪었는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신의 삶에 대해 후대인들이 내린 다양한 해석들은 분명 유신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를 애국시인 혹은 이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신이란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을지는 자못 의문스럽다.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에 근거한 규정짓기를 삼가고 시문에 나타난 정서와 용의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과 절조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신의 사상

1. 유가 사상의 영향

(1) 천도관

우주는 대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우주가 결정되는 요인에 대한 논쟁은 중국사상사에서 줄곧 쟁점이 되어 왔다. 유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思舊銘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하늘이란 푸르고 푸른 기운이고 땅이란 단단한 덩어리로 된 흙이라. 한을 품은 사람이 무얼 느낄 수 있겠는가!(所謂天乎, 乃曰蒼蒼之氣, 所謂地乎, 其實搏搏之土, 怨之徒也, 何能感焉)¹⁾

천지는 비할 바 없이 영험한 신이 아니고 차갑고 무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荀子 사상의 핵심으로 漢代 이래의 天人感應 사상에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유신의 시문은 모두 倪璠注·許逸民校點, 《庾子山集注》(台北: 源流出版社, 1983) 참조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신은 이러한 氣一元論의 자연관²⁾으로 인해 신성한 하늘에 회의를 품고 천도는 아득하여 들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생사와 고난을 하늘에 물어볼 수 없다”(死生契闊 不可問天)(〈哀江南賦〉)라고 하여 사회의 혼란으로 생겨난 민생의 고난은 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하늘에 묻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는 또 “인생은 실로 처음이 있고 천도는 끝내 그치지 않네”(生涯實有始, 天道終虛曩)(〈和張侍中述懷〉)라고 하여 인생 자체에 처음과 끝이 있으나 천명은 도리어 무상하고 허망하여 좇기 어려우며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³⁾ 그리고 유신은 천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여 설령 의문에 봉착하더라도 하늘에 가르침을 받거나 해답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擬詠懷〉 제12수 중에서

옛 옥사에는 원기로 가득하고	古獄饒冤氣
빈 정자에는 원혼이 떠돈다오	空亭多枉魂
하늘의 도 더러 물어본다지만	天道或可問
미묘하여 차마 말하지 못한다	微兮不忍言

유신이 천명에 대하여 원분을 품고 있는 것은 실로 천제에 대한 불경과 무시로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난 현상을 근거로 유신은 전통적인 천명 사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비판을 가한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어둡고 취하였다고 나무랐다. 예컨대 “천도가 본래 묘망하여 분명치 않으니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諒天造兮昧昧, 嗟生民兮渾渾)(〈小園賦〉), “초나라 경내의 10여 군이 진의 땅이 되니 하늘은 어찌 이리도 취하였나”

2) 유신은 우주 만물이 모두 氣에서 내원하였다고 여겼다. 〈周五聲調曲·宮調曲〉: “기는 청탁으로 나뉘어지고 원은 천지로 나뉘어진다. 삼재는 처음 바로 놓이고 육위는 처음 이루어졌다.”(氣離清濁割, 元開天地分. 三才初辨正, 六位始成文.)
 3) 이러한 사상은 유신이 전통적 천도관에 대하여 오묘한 철학적 비판을 가한 것으로 明代의 屠隆은 찬탄하여 말하기를 “‘허탁’ 두 글자는 묘하다. 바로 아이에게 조화를 부려 사람을 우롱하는 것이다”(虛曩二字妙, 便見造化小兒欺弄人處)라고 하였다.(《庾子山集》, 四庫叢刊初編本 34冊, 上海: 商務印書館, 39쪽上)

(以鵠首而賜秦, 天何爲而此醉)(〈哀江南賦〉) 등이다. 또한 천도의 불공평에 대해서도 책망하였다. 예컨대 “어두운 하늘이여 이지럽기만 하구나……세상의 많은 사람들 갑자기 생명을 잃는다”(憤憤天公曉, 精神殊乏少……天下有情人, 居然性靈夭)(〈擬詠懷〉19), “하늘의 병이 깊어 상란이 많도다”(天方薦瘳, 喪亂弘多)(〈擬連珠〉1)라고 하여 천도가 혼미하고 무지하여 인성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고 전통적 천명론에서 말하는 天行賞罰說과 福善禍淫說에 대하여 부정하고 반박하였다. 유신의 이러한 일련의 천도에 대한 회의와 질문 및 저주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예로부터 유가에서 의지를 지닌 인격신으로 간주해왔던 하늘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의 반천명 사상을 엿볼 수 있다.⁴⁾ 그러나 이와 달리 8세조 庾滔부터 살아오던 남방을 떠나 북방에서 떠돌게 된 현재의 신세를 천도 순환의 소치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늘의 도리는 성쇠가 순환하는데 사람의 운명도 그에 따라 성쇠가 순환한다. 공을 세운 나의 8세조는 서진 때 전란을 만나 떠돌다가 장수 동편의 강릉에 이르렀다. 7대가 지나서 나는 또 시대적 변란으로 북방으로 옮겨왔다.(天道回旋, 生民預焉. 余烈祖於西晉, 始流播於東川. 洎余身而七葉, 又遭時而北遷)(〈哀江南賦〉)

이 말에는 자기 위안의 뜻과 함께 운명에 모든 것을 돌리는 절망적 정서가 담겨 있다.⁵⁾ 그는 양나라의 흥망을 회고하면서 집정자의 주관적인 요인 이외에도 천의가 관련되어 있음을 통감한다. 그가 “하늘이 망하게 하니 분한 싸움을 하게 됐고, 햇빛이 흐려지니 힘겨운 전투를 치렀다”(天亡遭憤戰, 日蹙值愁兵)(〈擬詠懷〉11)라고 한 것은 천의가 양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는 양나라가 멸망하게 되리라는 징후가 이미 나타났음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곧은 무지개가 아침에 보루

4) 鍾優民, 〈庾信思想三題〉, 《藝術月刊》, 1986. 8, 47~48쪽 참조.

5)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346쪽 참조.

를 비추었고 살벌이 밤중에 군영에 떨어졌다”(直虹朝映壘, 長星夜落營)(〈擬詠懷〉11), “거리에 괴상한 짐승이 울부짖고 성에는 산이 무너진 듯한 구름이 일었다”(哭市聞妖獸, 頽山起怪雲)(〈擬詠懷〉13), “수목이 운을 바뀌어 산천이 무너지고 말라버렸다”(水木交運, 山川崩竭)(〈哀江南賦〉) 등이다. 시문에 드러난 표현을 볼 때 유신이 비록 전통적인 천도관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의 사상에는 숙명론과 미신 사상이 혼재함으로써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의 사상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충절관

유신은 대대로 충효를 받드는 가문에서 태어나 절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⁶⁾ 그는 줄곧 “가문에 바른 도 있어 절조를 지킨 자가 많았으며, 자식들 가르침에 정성을 다하였고 임금을 섬김에 의열로 빛났던”(家有直道, 人多全節. 訓子見於純深, 事君彰於義烈)(〈哀江南賦〉) 전통을 잊지 못한 자신을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풍과 세덕을 중시할수록 선조들에게 누를 끼쳤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가풍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절조를 잃었다는 자괴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여기서 절조란 사람의 입신 처세의 도리에 관한 선택 행위에서 드러나는 도덕 품성을 말하는데, 유신이 강조한 절조는 조대가 바뀌고 군주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고국인 양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충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는데 이는知己에 대한 보은의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나라가 부흥하였다면 그에게는 귀

6) 《庾子山集注·滕王道原序》: “문장과 학문이 뛰어났고 지혜와 의기를 지녔으며 명성이 높아 강남에서 독보적이었다. 예의 범절에 밝아 7대에 걸쳐 수재로 천거되었고 인품이 뛰어나 5대를 이어 문집이 있었으며 귀족 가문으로 명망이 높았다.”(文宗學府, 智囊義窟, 鴻名重譽, 獨步江南. 或昭或穆, 七世舉秀才, 且珪且璋, 五代有文集. 貴族華望盛矣哉.)

국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지만, 남조는 바로 진으로 교체되었고 상심한 그는 “오강의 뗏목배 돌아갈 길이 없음을 알겠고 흰기러기 서신을 품고 있으나 부칠 곳이 없겠도다”(烏江艤楫, 知無路可歸, 白雁抱書, 定無家可寄)(〈擬連珠〉44)라는 말로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로 陳霸先에 대한 적대감도 한 몫을 하였다.⁷⁾ 옛 친구 周處士가 진에서 벼슬하다가 남방에서 죽었을 때 유신은 애도하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비록 생사를 달리 하였으나 모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雖言異生死, 同是不歸人)(〈和王少保遙傷周處士〉)라는 말로 주 처사가 비록 북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유신이 이처럼 남방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는 절조를 지버린 죄인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⁸⁾

유신이 북조에서 벼슬하게 된 데는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맞물려 있었다. 유신은 진나라에 가졌던 적대감 때문에 진나라가 통치하는 강남으로 돌아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周書·庾信傳》 중에 나오는 일단의 서술에는 王褒와 유신을 “재주가 뛰어나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⁹⁾는 말로 칭송하고 있고 그들의 출사를 남국의 인재를 빌린다는 비유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서위의 강압에 굴복하였다기보다는 그의 문학적 재능을 높이산 서위의 요구에 순응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유신의 입장에서 볼 때 서위가 그를 억류한 것은 “한번 방문하는 것은 칙벽보다 귀중하고 친금은

7) 《庾子山集注·年譜》: “진업은 이미 양의 땅이 아니니 유신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으며……비록 향관에 대한 사념이 강렬하기는 했지만 진으로 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建鄴既非梁有, 信遂無所可歸. ……雖極思念鄉關, 實無歸陳之志.)

8) 葛曉音, 《八代詩史》(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292~293쪽 참조.

9) 《周書》卷41, 〈庾信傳〉(台北: 鼎文書局, 1980), 744쪽 “奇才秀出, 牢籠於一代.”

한 마디 말보다 가볍다”(一顧重尺璧 千金輕一言)(〈擬詠懷〉6)는 그의 시구처럼 야만적 구류에 다름 아니다. 그는 “창부는 억지로 시집갔고 인질은 계속 억류되었다”(倡家遭強聘 質子值仍留)(〈擬詠懷〉3)는 말로 사신으로 장안에 와서 뜻밖에 형세가 급전하여 하룻밤 사이에 대국의 신하에서 죄수의 신세가 되었음을 나타냈고, “가기만 했지 돌아올 수는 없었다. 중흥의 길은 사라지고 갑술년으로 끝이 났다. 역정으로 달려가 삼일 동안 울었고 별관에 삼년 동안 갇혀 지냈다”(華陽奔命 有去無歸 中興道銷 窮於甲戌 三日哭於都亭 三年囚於別館)(〈哀江南賦〉)는 말로 자신의 처경을 토로하였다. 유신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장안에 억류되고 이처럼 생사 여탈이 남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용기를 잃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복잡한 절조 의식을 내비쳤다.¹⁰⁾ 예컨대 “나무도 이럴진대 사람이 어찌 감당하리오”(樹猷如此 人何以堪)(〈枯樹賦〉), “마음은 역릉의 고목과 같다”(心則歷陵枯木)(〈小園賦〉), “교양은 다 죽지 않았고 오동은 반만 살았네”(交讓未全死 梧桐唯半生)(〈慨然成詠〉), “교양에 비유하자면 실제로 반은 죽었으나 살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저 오동에 비유하자면 목숨은 부지하나 죽은 것과 같다”(譬之交讓 實半死而言生 如彼梧桐 雖殘生而猷死)(〈擬連珠〉27) 등에서 충절을 지키지 못한 낮 부끄러운 심정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 밖에 〈傷心賦〉 〈北園射堂新成〉 〈別庾七入蜀〉 등에도 절조를 잃은 유신의 화신, 즉 고목의 형상이 거듭 나타난다. 특히 〈竹杖賦〉와 〈邛竹杖賦〉에는 竹(氣節)의 개념으로 충절의 의미와 이를 저버린 고뇌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문에 드러난 애끓는 정서는 절조를 저버린 행위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지탱해 나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0) 절조 의식은 사람의 절조 행위가 밖으로 드러난 후에 그 절조에 대해 자아를 반성하거나 평가할 때의 사상,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심리 활동을 말한다. 楊尙梅, 〈節操意識 庾信後期性情之作主題解讀〉,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3: 4(2001. 7), 44쪽 참조.

(3) 문학관

유신은 자신과 고대 시인의 불행한 처지를 관련지어, 문학 창작은 모두 작가의 마음에 맺힌 정서가 밖으로 우러나온 결과물이라고 여겼다. 그는 <傷心賦序>에서 말하기를

이것을 상심하고 죽은 남녀를 회상하니 더욱 슬퍼진다. 오로지 상심할 뿐이어서 부를 지어 상심 두 글자로 이름하였다……반첩여는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는 부를 지었고 양웅은 굴원을 애도하는 문장을 지었고 왕정장은 삭풍을 맞는 슬픔을 겪었고 사안석은 동산에 은거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 한을 품었으니 이들은 모두 상심한 자들이다. 조자건, 왕중선, 부장우, 응덕런, 유도의 모친 임연의 모친이 쓴 서신은 몹시도 슬프고 그들이 지은 문장은 애통한데 그 중에는 온갖 슬픔과 한을 담고 있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다。(既傷卽事，追悼前亡，惟覺傷心，遂以傷心爲賦……婕妤有自傷之賦，揚雄有哀祭之文，王正長有北郭之悲，謝安石有東山之恨，斯既然矣。至若曹子建、王仲宣、傅長虞、應德璉、劉韜之母、任延之親，書翰傷切，文辭哀痛，千悲萬恨，何可勝言。)

즉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애상의 글 대부분이 작가의 참담한 처지가 지극한 정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유신은 문학 창작과 사회 생활의 내재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가졌다. 그의 <哀江南賦序>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악은 뛰어난 문체를 발휘하여 가세의 풍범을 노래하였고 육기는 사부를 지어 선조의 도덕을 서술하였다. 나는 중년의 나이에 전란을 만나 멀리 떠돌다 노년에 이르렀다. 연가를 부르며 멀리 이별하니 슬픔을 견딜 수 없도다. 초나라의 늙은이 만나면 울음소리 어디까지 들릴런지. 남산의 비를 두려워하며 문득 진의 조정에 나아가고 동해의 물가를 떠나 마침내 주나라의 곡식을 먹게 되었네. 하정에서 유랑하고 고교에서 객으로 머무니, 초나라 노래는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노나라 술로는 근심을 잊을 수 없어라. 이에 부를 지어 몇 마디 말을 남기노니 이 중에 두렵고도 고통스런 말이 없지 않으나 오직 비애를 위주로 하겠노라。(潘岳之文采，始

述家風。陸機之辭賦，先陳世德。信年始二毛，即逢喪亂，貌是流離。至於暮齒，燕歌遠別，悲不自勝。楚老相逢，泣將何及。畏南山之雨，忽踐秦庭，讓東海之濱，遂餐周粟，下亭漂泊，高橋羈旅，楚歌非取樂之方，魯酒無忘憂之用，追爲此賦，聊以記言。不無危苦之辭，惟以悲哀爲主。）

옛 사람들의 창작 동기와 자신이 부를 지은 동기에 근거하여, 작가 개인의 독특한 이력과 보편적인 인간사, 예컨대 悲歡·離合·窮達·榮辱 등이 모두 시인의 창작열을 추동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난한 자는 가난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하고 고생하는 자는 고생에 대하여 노래하기 마련이다”(窮者欲達其言, 勞者須歌其事)(〈哀江南賦〉)라는 말로 자신의 창작관을 피력하였다. 그의 후반 생애는 처량하고 고독하였으며 굴욕적인 유랑 생활은 동란 시대의 ‘窮者’였고 또한 ‘勞者’였다. 소위 ‘達其言’와 ‘歌其事’는 바로 抒情·言志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창작론은 한대 詩敎說의 “勞者歌事”(〈韓詩序〉)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유가적 문학관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도불선에 대한 입장

(1) 도가관

유신이 북조에서 받은 관위와 대우가 남조에 버금갔다고 하지만 고국이 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었다. 그는 유가의 “遁世無悶”과 “樂天知命”의 사상으로 자신을 격려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받았던 심리적 고통은 이미 유가 사상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가 <擬詠懷> 중에 “번민하지 않으려 해도 번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다리려 하는데 무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無悶無不悶 有待何可待 (제25수), “낙천이 바로 지명이라는데, 언제나 이 근심 지울 수 있을까”(樂天乃知命, 何時能不憂) (제8수) 라고 했던 말은 유가 사상에 대한 회의

를 드러낸 것으로 도가 사상에서 마음의 평정과 위안을 얻고자 했던 그의 내면적 방향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유신은 본래 노장을 신봉하지 않았으나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 세계를 추구하고자 출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출세 사상은 대체로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개인의 신세를 한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초탈을 추구하고 대자연에 뜻을 기탁하고자 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회는 때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솨음쳤으나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로 매번 갈등을 겪어야 했고 고통스런 선택을 통하여 초탈의 길을 희구해야 했다. <擬連珠> 제43수에서

듣건대, 허주에 몸을 맡기고 떠다니며 자연의 변화에 따르며 충신을 벗하고 인의를 마음에 품었다네. 그리하여 장자를 배워 득실을 따지지 않으니 만물이 齊同이고 노자를 따라 유무를 논하지 않으니 虛靜이 절로 얻어진다.(蓋聞虛舟不忤, 令德無虞, 忠信爲琴瑟, 仁義爲庖, 是以從莊生, 則萬物自細. 歸老氏, 則衆有皆無.)

이를 통해 유신이 어느덧 老莊의 허정의 세계로 물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노장을 따른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 서였을 뿐이다. 정신적 안식처를 꿈꾸는 이러한 심경은 <小園賦>와 <擬詠懷> 중에 묘사한 전원은거도에서 더욱 잘 나타나 있다. 그는 <小園賦>에서 “야인의 집이라 이름한 것은 우공의 계곡을 일컬음이라”(名爲野人家, 是謂愚公之谷)라고 하였고, <擬詠懷> 제16수에서는 “죽림은 천호후에 봉하고 감귤은 만명의 노예로 삼는다. 사람들은 이곳을 우공곡이라 부르고 진정 이 계곡을 어리석은 곳이라 하겠지”(竹林千戶封, 甘橘萬頭奴. 君見愚公谷, 眞言此谷愚)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통과 굴욕 속에 살며 불평과 자기 위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순된 모습인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장자의 齊物論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문 나서자 수레 옆이 지니, 우리 임금 다시 돌아오지 않네”(出門車軸折, 吾

王不復回)(<擬詠懷>27)라고 표현된 國破家亡의 울분은 도가의 평화·광달의 경지로도 해소될 수 없었으니 마침내 “비록 호접몽을 꾸는 거라 하지만 정녕 나는 장주가 아니로다”(雖言夢蝴蝶, 定自非莊周)(<擬詠懷>18)라는 말로 절망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요컨대, 유신의 도가 사상은 歸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유가적 성향의 인물인 그가 환경의 영향으로 얼마만큼의 사상적 혼돈을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마음이 전원과 산림으로 향하면서 도가의 자연주의적 이상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지만 단지 마음을 無爲에 기탁하고자 하였을 뿐 노장의 세계에 침윤된 것은 아니었다.¹¹⁾

(2) 불교관

《庾子山集》 중에는 많은 불교와 관련된 시문이 있다. 예를 들어 <奉和同泰寺浮圖>는 簡文帝의 <望同泰寺浮圖詩>에 唱和하여 지은 작품으로 동태사 불탑의 웅건하고 장엄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듯이 선명하고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거의 모방에 가깝다. 궁정 문인이 이처럼 군주의 편장에 창화하는 것은 일종의 문자 유희로 제재와 용어, 旨趣面에서 창화자 본인의 사상을 진실되게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奉和闡弘二教應詔>와 <奉和法筵應詔> 두 수도 명을 받고 지은 작품이다. <奉和闡弘二教應詔>는 天和 4년(576) 2월에 북주 무제가 궁내의 백관과 도사 및 승려들을 모아놓고 석가모니와 노자의 가르침을 토론할 때 그 자리에서 명을 받고 지은 것으로 제목만 ‘闡弘’이지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奉和法筵應詔> 중에서

유량자로 쓸모없는 인물이
어이 이치를 알 수 있으리
대체로 추측할 따름이어서
멍하니 곤현만 바라본다오

羈臣從散木
何以預中天
中天遙可望
終類仰鳴絃

11) 李嵐, <庾信晚期文學探源>, 《漢中師院學報》, 1986. 3, 54쪽 참조.

라고 했는데 이는 健德 원년(572) 북주 무제가 玄都觀에서 몸소 법좌를 강설할 때 지은 應和詩이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서 지어진 작품의 경우 대체적으로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작품에 드러난 정서를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은 유랑하는 신세로 불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고 원래 이 모임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더더욱 지금은 그저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라는 겸양의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그 자리에 있기 거북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신이 지은 불교와 관련 있는 碑銘, 예컨대 <陝州弘農郡五張寺經藏碑>와 <秦州天水郡麥積崖佛龕銘>도 남의 청탁을 받고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의 이러한 불교 관련 시문들은 모두 창도자 혹은 청탁자의 심리에 맞게 쓰여진 것으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상을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유신은 일찍이 양나라의 승불 풍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예컨대, <哀江南賦>에서 말한 “중운전 강좌를 설치하고 사림관 학궁을 개설하여, 학사들과 천지의 대접이 끝나고 남은 재에 대해 담론하고, 춘추 시기에 밤에 항성이 보이지 않은 때가 부처의 탄생 시기임을 변별하였다”(設重雲之講, 開士林之學, 談劫燼之灰飛, 辨常星之夜落)라고 하여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불교에 빠져 조정을 쇠신하지 못하고 군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양나라 멸망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겼다. 더욱이 <傷心賦>에서는 “하충·하준이 불교를 신봉하고 치암·치운이 도교를 신봉하였으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보장하리오!”(二王奉佛, 二郗奉道, 必至有期, 何能相保)라고 하여 생사에 개인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규율이 있어 불교와 도교를 믿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며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주장하였다.¹²⁾ 결국 이 말은 그가 도불 사상에 종교적으로 경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鍾優民, 앞의 책, 45~46쪽 참조.

(3) 선도관

유신의 선도적 색채의 표현은 조정의 종교 정책에 부응할 목적으로 지은 것, 遊仙의 경지에 그윽한 정취를 기탁한 것, 또는 이를 통하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에서였지 시인의 종교적 경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예컨대 <至老子廟應詔> <奉和趙王遊仙> <奉報窮秋寄隱士> 등이 선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왕에는 설결을 만나게 되고	王倪逢齧缺
걸닉은 장지와 함께 밭을 간다	桀溺耦長沮
여상에서 해를 등지고 누웠다가	藜牀負日荷
맥농에서 호미로 밭갈이 한다	麥隴帶經鋤
자연스런 구부러진 책상에	自然曲木几
이름 없는 고문으로 쓰인 책	無名科斗書
꽃을 모아 문득 학에게 먹이고	聚花聊飼鶴
못을 만들어 물고기 키위본다	穿池試養魚
.....

(<奉報窮秋寄隱士>)

유신은 양무제가 종교에 빠져 초래한 결과를 교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표현한 선도에 대한 동경도 당시의 풍조에 따른 것일 뿐이다. 또한 유신이 奉詔·奉和한 많은 작품들은 제왕의 요청 혹은 명을 받아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의 후반생을 살펴보면 북조에서 높은 관위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문학적으로도 재능을 인정받아 귀족들과 응대할 기회가 많았다. 鄉關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줄곧 북조 군왕을 모셨는데 이로 볼 때 그가 여전히 명예에 연연하였고 은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은거를 실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그는 내면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應詔하면서도 신세를 돌이켜보고 봉화하면서도 은일하려는 생각을 품었지만 실제로는 마음먹은 대로 행하지 못하였다. 선도에 대한 동경, 또한 長生久

視의 즐거움은 없었지만 超世絶俗의 정취가 있어서, 國破家亡에 대한 아픔은 신선 세계에 대한 상상을 통하여 위안받을 수 있었다.¹³⁾

Ⅲ. 유신의 절조 의식

1. 내면 정서의 모순

유신은 북조에서 28년 동안 생활하면서 양나라와 북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는 충정과 애도의 마음으로 양나라를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서위와 북주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질시가 교차하는 복잡한 정서를 드러냈다.

(1) 충정

유신이 554년부터 557년까지 창작한 시문을 살펴보면 북조의 신하가 되지 않고 양 왕실을 그리워하며, 강남으로 돌아가 양나라 정권에 중용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和張侍中述懷>에서 말한 “언젠가 때를 만나 청운의 뜻을 이루리라”(何時得雲雨, 復見翔寥廓)가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 유신의 양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기본적으로 지기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심정은 <擬詠懷> 제6수에서 “다만 보답한다고 말할 뿐 보답할 방도를 알지 못한다”(直言珠可吐, 寧知炭欲吞)라고 한 것처럼 마음은 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한탄과 옛 정을 그리워하는 심정에 잘 드러나 있다. 유신의 충정은 양나라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에 바탕을 두고 있어 ‘충군’과 ‘애국’은 그의 삶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¹⁴⁾ 그래서 그가 양나라와 군주를 그리워하는 마

13) 吳淑鈿, <庾信詩中的仙道色彩>, 《中國詩歌與宗教》(香港: 中華書局, 1999), 48-49쪽 참조.

음에는 애국적 정서가 절절히 내포되어 있다.

(2) 애도

유신은 죽임을 당한 많은 양나라의 군신과 백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동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곡림에서 떠나 보내니 창오는 따르지 않고, 오동과 같은만이 있고 나무 없고 봉분 없다”(穀林長送, 蒼梧不從, 惟桐惟葛, 無樹無封)(〈擬連珠〉12)는 구절을 통해 양원제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정을 나타내었고, 또 “가을 기운에 떨어져 내리도다. 치량한 신세여. 怨情이 많기도 하지……초가엔 한 맺힌 곡조 넘치고, 남방의 노래엔 죽어가는 소리 많다”(搖落秋爲氣, 淒涼多怨情……楚歌饒恨曲, 南風多死聲)(〈擬詠懷〉11)는 구절을 통해 양나라의 멸망을 슬퍼하였다. 이러한 정감은 당시 많은 남방 인사들이 가졌던 애국적 정서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3) 수치

유신의 수치심은 주로 유가의 不事二君 관념에 기인한 것이다. 양나라의 신하였던 그가 국과가망을 목도하면서 서위에 사신으로 감에 따라 난국 해결에 궁극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는 이것을 “부절을 품고 달려나가 명을 진하였으며, 역정에 머물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擁節時驅傳, 乘亭不據鞍)(〈擬詠懷〉20)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는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순절한 伯夷와 叔齊처럼 되지 못하고 북주에 벻슬하며 구차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절조를 잃은 데 대한 통한과 수치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던 그는 “숙망은 속알맹이가 없어도 죽지 않으나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하고, 파초는 마디가 없어도 잘 자라지만 그러한 까닭에 절조가 없음을 알 수 있겠도다”(卷菴不死, 誰必有心, 甘蕉自長, 故知無節)(〈擬連

14) 劉文忠, 《鮑照和庾信》(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142 쪽 참조

珠>38)라는 말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였다. 그는 고국의 군주를 잊지 않았음에도 위주에 벼슬했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평생 고통 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질시어린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따라서 그가 수치심을 표현함으로써 북조에서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 했다거나 후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설로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4) 비판

유신의 양나라에 대한 엄정한 비판과 견책은 비록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양나라 군신들이 청담과 불전에 심취하여 방비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해 “학사들과 천지의 대접이 끝나고 남은 재에 대해 담론하고, 춘추 시기에 밤에 항성이 보이지 않은 때가 부처의 탄생 시기임을 변별하였다. 어치산의 수비는 허술하였고 성벽은 거의 다 허물어졌다”(談劫燼之灰飛, 辨常星之夜落. 地平魚齒, 城危獸角)(〈哀江南賦〉)라는 말로 나타냈다. 또한 “백리의 포위를 푸는 데에는 진평의 책략이 필요하고, 천승지국과 동맹하는 데에는 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도다”(開百里之圍, 用陳平之一策; 盟千乘之國, 須季路之一言)(〈擬連珠〉3)라는 말로 梁武帝가 서위에서 모반한 侯景의 귀순을 받아들여 망국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조정에 군주가 처한 위난을 구하고 기울어가는 사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었던 것에 대해 개탄하였다. 이 밖에도 양원제의 경거망동 및 岳陽王 蕭敞가 서위와 결탁하여 저지른 죄상 등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는 양나라가 부패한 왕조로 필경 멸망하게 되리라는 역사의 객관적 규율을 제시함으로써 후세에 소중한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다.¹⁵⁾

15) 鍾優民, 〈枯木期填海, 青山望斷河: 論庾信作品和人格〉, 《文學評論》, 1988. 1, 143-149쪽 참조.

(5) 절책

유신은 서위가 강릉에서 불의의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통탄하였다. 양나라의 많은 신하가 포로로 잡혔으며 대소 관원과 무고한 백성들이 무참히 살육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哀江南賦>에서 “양나라의 신하들은 도륙당하거나 구금되었고 백성들도 사나운 매의 공격을 받아 고통 받고 죽임을 당했다. 수난자의 애원은 천지를 감동시키고 여름날 한을 품은 서리 내리고 가을 날 응덩이 물은 분을 터뜨려 샘물이 되었다. 과부의 통곡소리에 성벽이 무너지고 아녀자의 피눈물은 상죽을 붉게 물들었다”(剛谷摺拉, 鷹鷂批沸, 冤霜夏零, 憤泉秋沸, 城崩杞婦之哭, 竹染湘妃之淚)라고 하였다. 또한 서위가 저지른 많은 불의에 대하여 엄정한 절책을 가하였다. <擬連珠> 제15수에서 “듣건대, 삼대에 걸쳐 용병한 자는 패하게 되고 음모를 많이 쓴 자는 반드시 흉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도위의 풍상은 난산에 올라 화살을 다했고 육평원의 의기는 하교에 올라 나아갈 수 없었다”(蓋聞三世用兵, 既非貽厥, 陰謀累葉, 必以凶終. 是以李都尉之風霜, 上蘭山而箭盡. 陸平原之意氣, 登河橋而路窮)는 표현으로 강릉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문신과 무장이 더러는 전사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된 사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6) 두려움

유신이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북조에서 벼슬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혹은 타의에 의한 것이든 그에게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때로 분기하여 “고목으로 바다를 메우고, 청산으로 황하를 끊고 싶어라”(枯木期填海, 青山望斷河)(<擬詠懷>7)라고 외쳐 보기도 하였지만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기도 하였으나 정작 실천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만금의 재산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동으로 창해군을 찾아나선다”(惜無萬金產, 東求滄海君)(<擬詠懷>13)고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격앙된 목소리에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순된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다. 서위에서 북주를 거쳐 수에 이르

기까지 찬탈이 이어져 살륙이 그치지 않았으며 상층귀족사회 역시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는 매한가지였다. “말씀씨를 연마하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바람 맞아 독 날리고 그림자 보고 모래 뿌린다”(磨礪唇吻 脂膏齒牙 臨風扇毒 向影吹沙)(〈擬連珠〉42)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신은 북조 권력들의 약육강식과 갈등 속에서 신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매는 병아리 노려보고 백로는 물고기 내려다 본다”(蒼鷹斜望雉 白鷺下觀魚)(〈寒園即目〉)라는 말로 자신의 운명이 마치 물고기와 같아 수시로 매와 백로와 같은 흉포한 강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북주가 그에게 베푼 예우에 응수하여 치사를 곁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 황제를 치켜세우게 까지 된 것이다.

2. 현실적 처세 태도

유가의 충절을 중시하는 전통 사상의 영향으로 유신은 확고한 충절 관념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도의를 저버린 자신의 실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자신감 상실과 존재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중국의 전통적인 절조 관념으로 볼 때 그는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유신은 주동적으로 서위에 투항했다기보다는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의 신분으로 갔다가 서위가 양나라를 남침함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류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가 미리 억류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왕에 그가 서위에 사신으로 가야만 할 상황이 었다면 그는 기꺼이 사명을 받들고 그가 양나라에서 받았던 은덕을 보답할 기회로 여기고 서위로 갔을 것이다. 또한 양나라를 위해 헌신하려는 ‘壯情’과 ‘雄圖’¹⁶⁾는 실제로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

16) 〈擬詠懷〉 제5수 “장대한 뜻은 이미 소진하였고 응대한 포부를 다시는 펼칠 수 없게 되었다.”(壯情已消渴, 雄圖不復申.)

더라도 나라를 모반하여 적국에 벼슬하려 한 것과는 엄연히 거리가 멀었다.¹⁷⁾ 더욱이 남북조는 분열과 통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전란의 시기로 서 사대부들의 국가 관념이 확고한 시대는 아니었고, 연이은 찬탈이 자행되면서 충성의 관념 역시 큰 의미를 지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은 자신이 절조를 저버린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치 않으려 하였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변명하고 심지어 천도 순환의 소치 등을 운운하였으니 그로 인해 얻은 결과라고는 굴욕감이 가져다주는 참담한 고통뿐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후기 작품 중에는 그의 충절 관념과 모순되게 북주의 군주에게 중용되기를 바라는 듯한 속셈을 드러낸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문부 같은 한편의 부로 어디서 황금을 구할 수 있으리”(長門一紙賦, 何處覓黃金)(〈幽居值春〉), “바로 풍운의 참변을 만났으니 어그러진 심사 더욱 슬퍼지네”(直置風雲慘, 彌憐心事乖)(〈山齋〉), “다만 풍운을 바라지 인사는 논하여 무엇하리오”(但得風雲賞, 何須人事論)(〈望野〉), “이제는 장평자가 도리어 남의 동정 받겠구나”(今日張平子, 翻爲人所憐)(〈歸田〉), “더욱 생각나네 동문 밖에서 대신들이 이소를 송별했던 일이”(更想東門外, 群公別二疏)(〈寒園即目〉), “다만 서로 깊이 알고자 한다면 교류를 맺으려 올 수 있으리”(但使相知厚, 當能來結交)(〈園庭〉) 등이다. 이러한 구절에는 유신의 평소 충절 관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여지가 다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그의 북조 정권에 대한 태도 역시 미심쩍은 내용이 많다. 예컨대 “우리 태조 문황제께서 나라를 바로잡고 변방을 평정하여 관직을 배분하였으며 국호를 위에서 주로 바꾸고 풍속을 바르게 하셨다”(我太祖文皇帝, 體國經野, 設官分職, 變魏作周,

17) 유신이 북방에서 몸을 굽혀 벼슬한 사실은 고국을 모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陳抗이 《詩比興箋》(台北: 藝文印書館, 1970, 210쪽)에서 “더러는 유신이 주속을 먹고 양나라에 충성하지 못하여 비록 맥수지사에 부합하지만 결국에는 절조를 굽힌 것이다”(或謂子山終餐周粟, 未效秦廷, 雖符麥秀之思, 究慚采薇之操)라고 평가하였는데, 이 역시 양나라를 위해 절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질책을 가한 것이지 결코 모반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移風正雅)(〈賀新樂表〉), “소신은 보잘 것 없으나 명을 받잡고 글을 지으니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격이고 조가비로 바다물을 재는 격이어서 성대한 덕을 어찌 묘사할 수 있으리오”(小臣不學, 奉詔爲文, 以管窺天, 以蠡酌海, 盛德形容, 豈陳梗概)(〈三月三日華林園馬射賦并序〉) 등이다. 이와 같은 북주 군왕의 위상을 높여주거나 북주 조정을 자신의 조정으로 여기는 듯한 언사는 앞서 언급한 그의 충절 관념과는 동떨어진 것이다.¹⁸⁾

IV. 결 어

유신은 69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줄곧 유가의 입세적 인생관을 지니고 살았다. 그것은 아마도 가문의 분위기가 유신의 사상과 문학 수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의 입세적 인생관은 그의 품성과 정치적 이상,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간혹 도불선심을 내비치기도 해 출세적 사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 유가의 입세 사상을 추구하였다. 그가 도불선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만년에 이르러 잠시나마 은둔하여 신선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절망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사상적으로 경도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신선세계를 통해 잠시나마 현실에 대한 비분과 걱정을 가라앉히고자 했을 뿐이다. 따라서 그의 전반적인 사상이 변하였다거나 그의 신념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후기 성정을 드러낸 작품 중에 실절의 원인 치욕 슬픔, 실절에 대한 자책 후회 변명, 실절로 인한 신세감 고독감, 자아위안 자아해소의 바람과 절망 등을 내비치고 있는데 더러는 솔직하고 분명하게 더러는 모호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감화된 절조 의식은 현실적인 이유로 북주 권귀를 칭송한 것과 함께 그의 鄉關之思와는 또 다른 창작 내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張黎明·李艷, 〈求官于北朝 庾信建德間詩歌創作辨析〉, 《齊齊哈爾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 5, 58쪽 참조.

본고에서는 무릇 시대 상황과 개인적 처경의 상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급변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지식인이자 문화가였던 유신에 대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신의 삶은 우리들에게 예기치 못한 인생 역정이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유신이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절조를 지키지 못했고 다른 왕조에 버슬했다는 사실은 그의 인격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폄하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 參考文獻 >

- 倪璠 注, 許逸民 校點, 《庾子山集注》, 台北: 源流出版社, 1983.
- 屠隆 評, 《庾子山集》, 四庫叢刊初編本 34 冊 上海 商務印書館
- 令狐德棻 等, 《周書》, 台北: 鼎文書局, 1980.
- 陳沆, 《詩比興箋》, 台北: 藝文印書館, 1970.
- 葛曉音, 《八代詩史》,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9.
- 葛曉音, 《漢唐文學的嬗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0.
- 鄺健行 等, 《中國詩歌與宗教》, 香港: 中華書局, 1999.
- 劉文忠, 《鮑照和庾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林怡, 《庾信》,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999.
- 鍾優民, <庾信思想三題>, 《藝術月刊》, 1986. 8.
- 李嵐, <庾信晚期文學探源>, 《漢中師院學報》, 1986. 3.
- 鍾優民, <枯木期填海 青山望斷河: 論庾信作品和人格>, 《文學評論》, 1986. 8.
- 楊尚梅, <節操意識: 庾信後期性情之作主題解讀>, 《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3:4, 2001. 7.
- 張黎明·李艷, <求官于北朝: 庾信建德間詩歌創作辨析>, 《齊齊哈爾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 5.

〈中文提要〉

庾信由於梁朝滅亡，羈留北方，屈仕於西魏和北周。他從南朝轉到北朝，改變了的生活、環境，影響到他的思想人格。他的一生始終拳拳服膺儒家思想，惟至其晚年偶有歸隱向佛求仙等思想出現，於此可見境遇的逼迫與心態的變化，對文人思想可能產生的影響。他對蕭梁、北朝政權的態度，思想與行動充滿矛盾，感情十分複雜。歸納起來，大致上不離眷戀、哀悼、慙愧、批評、譴責、危懼六種。他經歷沈淪迷惘痛苦自省後，在後期作品中顯現了情感化的節操意識，時而傾訴失節之因、失節之辱、失節之苦、失節之悲，時而抒寫自我補救、自我解脫的希冀和絕望。由此可知，動亂易代時，懦弱苟活的讀書人，既不敢死又不願降的悲哀和矛盾。評價歷史人物，是個複雜的問題，尤其對歷史遺留的‘貳臣’、‘失節’等的問題，不能簡單化，也不能用後代的觀點去苛求，由於對失節的觀念，古今不同。囿於時代和環境的局限，庾信的處世態度和政治品質，遠非盡善盡美、無可非議，但不能因此就全般否認或貶斥他人格和文學成就。作者的社會出身和人生經歷，誠然補助說明作者及作品的態度與意識形態，但是却不能視為決定性因素。

주제어 : 庾信, 유가, 도불선, 절조 의식, 처세 태도